

신년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무재칠시(無財七施), 올 한 해를 사는 화두(話頭)로 삼아 보고자 합니다.

어떤 이가 석가모니를 찾아가 대화를 나눴는데,

“저는 하는 일 마다 제대로 되는 일이 없으니 이 무슨 이유입니까?”

“그것은 네가 남에게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저는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터리입니다. 남에게 줄 것이 있어야 주지 될
준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느니라. 아무 재산이 없더라도 줄 수 있는 일곱 가지는 있는 것이다.”

첫째는 화안시(和顔施), 얼굴에 화색을 띠고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로 남을 대하는
것이요,

둘째는 언시(言施), 말로서 얼마든지 베풀 수 있으니 사랑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부드러운 말 등이다.

셋째는 심시(心施),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마음을 주는 것이다.

넷째는 안시(眼施), 호의를 담은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것처럼 눈으로 베푸는 것이요,

다섯째는 신시(身施), 몸으로 때우는 것으로 남의 짐을 들어준다거나 일을 도우는
것이요,

여섯째는 좌시(座施), 자리를 내주어 양보하는 것이요,

일곱째는 찰시(察施), 굳이 묻지 않고 상대의 속을 헤아려서 도와주는 것이다.

“네가 이 일곱 가지를 행하여 습관이 붙으면 너에게 행운이 따르리라.”

석가의 무재칠시(無財七施)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마음을 다 잡으며 여러분께도 권해 드립니다.

新年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本年も宜しく申し上げます。

“無財七施” 今年の一年を生きる話題にして見ようと思います。

ある人がお釈迦様を尋ねて対話を交わしたところ、

“私はやることなすことまともにできる事がないのでこれは何の理由ですか？”

“それは君が他人に施さなかったためだ。”

“私は何も持ってない無一物です。他人に与えることがないのに何を与えろというのですか？”

“そうではないはずだ。どんな財産がなくても与えることができる七種はあるのだ。”

一番目は和顔施、顔に和色をして柔らかくて優しい顔で人を接することであり、

二番目は言施、言葉でいくらかでも施すことができるから愛の言葉、誉める言葉、慰労の言葉、激励の言葉、柔らかい言葉などだ。

三番目は心施、心の門を開いて暖かい心を与えるのだ。

四番目は眼施、好意を持った目で人を見ることのように目で施すことであり、

五番目は身施、身を持ってすることで他人の荷物を持ってやるとか仕事を助けることであり、

六番目は座施、席を渡して譲歩することであり、

七番目は察施、あえて聞かず、相手の心を図って助けることである。

“君がこの七種を行って習慣が付けばお前に幸運が付いて来るだろう。”

お釈迦様の無財七施に対する教えです。よく守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てもう一度心を引き締めることが出来たら皆様にも勧めします。